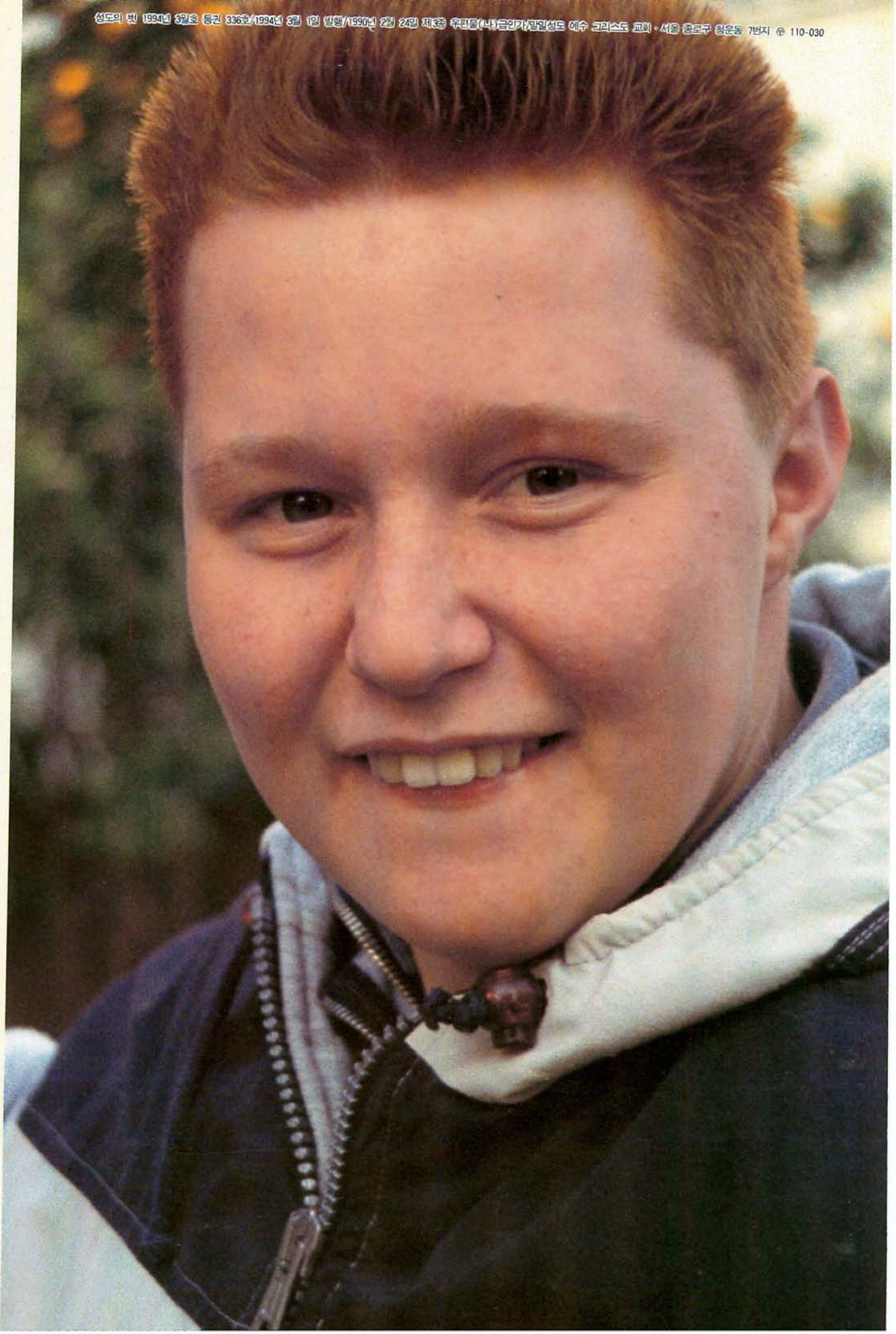


1994
3
성도의 빛

발행처
예수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이태리 로마는 인구가 오백만이 넘는 도시이다. 그처럼 큰 시가지를 가로질러 여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왕성도 청소년들은 토요일 오후 세미나리 공과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로마의 바른 길에서" 10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알프레드 더블류 워커 및 스쿠트 너드슨)

어린이란 표지 설명:

노아와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그림: 돈 웰러)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2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분 좋은 생활 부루스 시와 마리 헤이픈14

방문 교사로 봉사한 삼십 년 이르마 드 맥케나.....20

스펜서 더블류 김볼 :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26

출애굽 : 하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써 조명해 본 글
 에스 켄트 브라운34

청소년란

로마의 바른 길에서 디엔 워커.....10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아만다 민스33

네가 가르칠 차례야 쉘인 바커.....44

러시아에서 맺은 우정 모린 클레이튼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성신의 은사25

교회 및 지역 소식.....65

어린이란

산속에서의 경건함 캐롤 엘리 웰쉬.....50

주 사랑 느껴요 랄프 로저스 2세, 케이 뉴엘 데일리, 조리 후프만54

함께 나누는 시간 : 구원의 계획은 저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주디 에드워드56

뉴스 속의 친구들58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함 짐 캠벨60

자신의 간증 글렌 엘 페이스 장로62

심심풀이.....64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말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일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제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그림까지도 간증을 전합니다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사도 위원회 : 허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윌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포우스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웬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쿠트

편집인 : 레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 윌리엄 일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리안 케이 캘린,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 샘 엠 가와시카

성도의 빛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켈, 편집인 보조 / 어린이판 : 디앤 워커, 스케줄 관리 :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콧트 밴 캠퍼, 디자이너 : 사라 쿡, 생산 관리 :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니퍼 테트워일러, 제인 앤 캠프,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태프 : 발행 부서 책임자 :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36호, 제31권, 제3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4년 3월 1일(말일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천지문화원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 이 세 웅, © 199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10/92, 번역 승인 -10/92, March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3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처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저는 남편과 함께 이곳 에스토니아에서 최초의 핀란드인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회원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핀란드어 교회 잡지인 발케우스를 갖고 다니면서 읽는데, 이 잡지에는 때때로 에스토니아어로 된 지역 소식이 실리기로 합니다.

저는 특히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실려 있는 1993년 4월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이 4월호 잡지를 뒤적이고 있을 때, 제 옆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았는데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서 저에게 그 같은 잡지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잡지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삽화가 들어 있는 잡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저는 그 부인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잡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권의 권능에 관해 마리아 샤리키가 쓴 에스토니아어로 된 기사를 찾아내서 그 부인에게 읽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읽고 있는데 제 옆의 그 부인은 "그 말은 참되군요."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인을 우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미르자 실베노이넨 자매, 에스토니아 탈린

리아호나를 선물함

제가 침례받은 이후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항상 저에게 영감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께서 회사 친구들에게 리아호나를 주기 시작하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집

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이후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리아호나를 몇 권 주시고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 직장은 아버지께서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리아호나를 몇 번이고 읽어 보시고 그 내용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선교사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형제님을 준비시켜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성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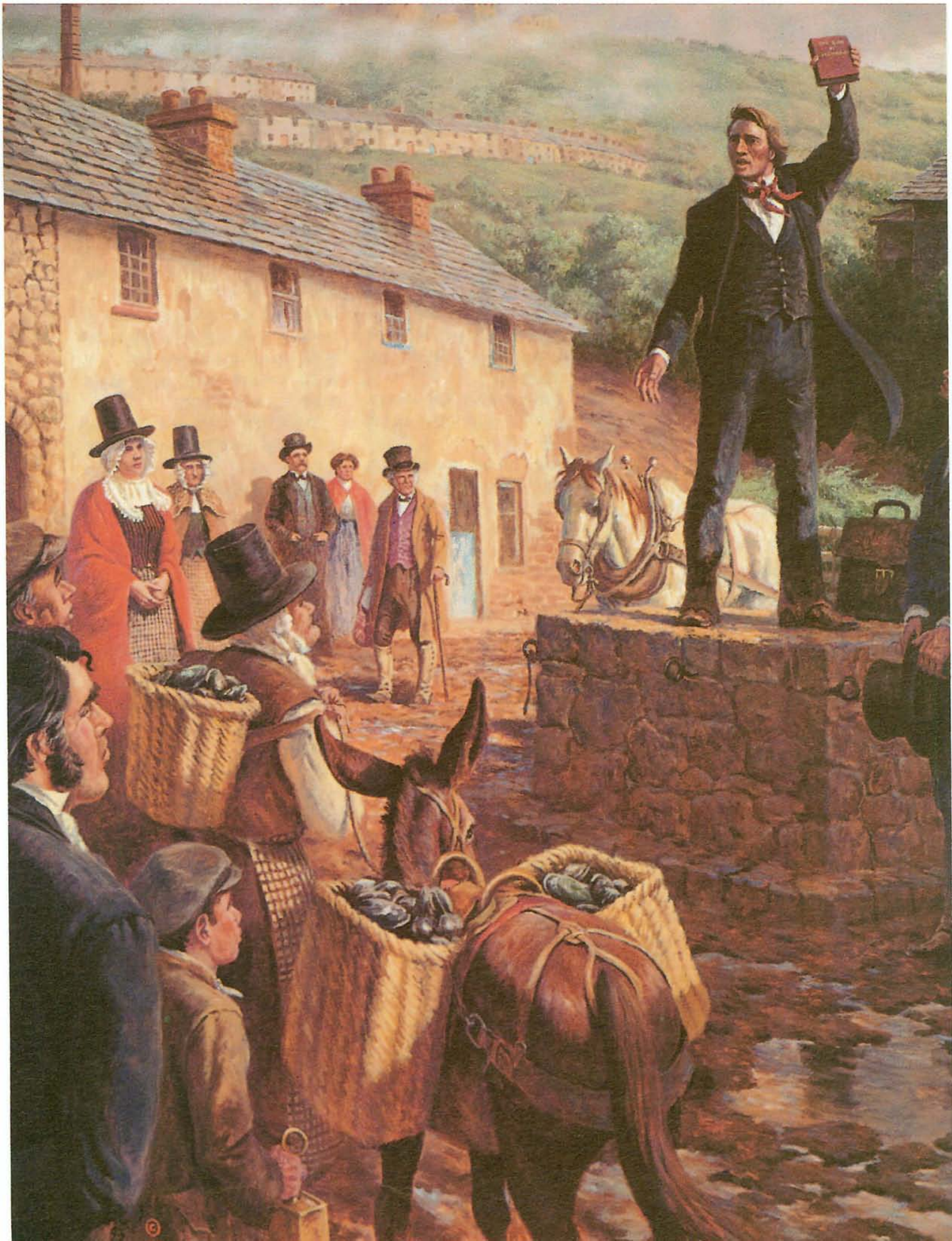
기시 로메오 아퀴레 다빌라, 파데탈라 맥스퀼탈

중국 본토로부터

저는 중국 본토에서 최근에 사이판으로 이주해 온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중국어 판 교회 잡지인 쉹투칭셹(성도의 소리)을 한 권 발견했는데, 호기심에 그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며 그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잡지를 읽고 저는 삶에 대한 용기와 난관에 대처할 힘을 얻었으며, 또한 물론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종교에 관해 좀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신으로 사이판에 왔기 때문에 종종 외롭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느낌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잡지입니다. 교회 잡지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리 레이밍, 사이판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 간구한 사람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반복하여 주신 위대한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5:6)

경전에는 확고한 결의와 헌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고귀한 사람들에 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감에 찬 이러한 내용 외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온 말일의 성도들의 한도 끝도 없을 듯한 이야기와 경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19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로 제 기억에 항상 강하게 와 닿는 것은 웨일즈 출신의 댄 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댄 존스는 예언자 요셉 스미



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하던 전날 밤에 댄 존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형제님은 죽기 전에 웨일즈를 보게 될 것이며, 형제님에게 맡겨진 선교 사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왼쪽: 댄 존스는 웨일즈에서 선교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스가 순교하던 전날 저녁에 예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덴 존스는 1810년 8월 4일 웨일즈 플린트셔셔의 홀킨에서 태어났습니다. 열 일곱 살에 선원이 된 그는 거센 바람에 소금 물보라를 쏟아 부어 대는 높은 파도와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배가 마치 키질을 당하듯 하는 위험 등 뱃사람으로서의 갖가지 경험을 겪고 배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시시피강을 오르내리는 작은 배를 구입하여 직접 운항하였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승객을 수송했는데, 나중에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42년에 땅딸막하고 체구가 탄탄한 서른 한 살의 이 웨일즈인은 승객을 300명이나 수송할 수 있는 큰 배인 *메이드 오브 아이오아호*의 이권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덴은 해운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물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 동안 물문들은 미주리에서 쫓겨나 일리노이주 퀸시에 잠시 피난처를 정했다가 다시 “아름다운 나부”에 정착지를 정해 있었습니다. 나부는 강이 넓게 구부러져서 땅이 반도 모양을 이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덴 존스는 당시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실린 반물문 기사들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물문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그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덴은 1843년 1월에 미시시피강의 차가운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4월에 덴은 영국인 개종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덴은 요셉 스미스를 만났는데, 둘은 첫눈에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6월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체포되어 카테지로 끌려갔는데, 그때 덴 존스도 그들과 동행하여 함께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테지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요셉 스미스가 덴 존스에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덴은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이 크게 두렵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요셉 스미스는 그가 한 예언 중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알려진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형제님은 살아서 웨일즈를 보게 될 것이며, 생전에 형제님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다음 날 예언자는 존스 형제에게 편지를 한 통 주면서, 일리노이주 퀸시에 있는 오빌 에이치 브라우닝에게 전달하여,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브라우닝씨가 요셉과 하이람을 변호할 수 있게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존스 형제는 감옥을 나와 폭도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말을 타고 가는데 그를 향해 폭도들이 총을 쏘았지만 그를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하느라 방향을 잃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을 죽였을지도 모를 폭도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퀸시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악몽과 같은 1844년 6월 27일 오후에 요셉과 하이람이 폭도들의 총에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덴 존스가 예언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이 요셉 스미스가 목숨을 바친 일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예언자가 그에게 한 말은 결국 성취되어,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덴 존스는 웨일즈로 부름을 받아, 아내 제인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존스 부부는 윌포드 우드럽 및 기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영국 제도로 향했습니다. 존스 장로는 웨일즈 북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그는 웨일즈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웨일즈어를 못하는 윌리엄 헨쇼는 남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년 후 헨쇼 형제가 해임되자 존스 장로는 웨일즈 전체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선교 본부를 웨일즈 남동부에 위치한 메르시어 티드필에 세우고, 몇 명 되지 않는 선교사를 이끌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45년부터 1848년까지 약 3,600명을 침례했는데, 이 숫자는 인구비로 볼 때, 당시 웨일즈에 살던 사람 278명 중 한 명꼴로 침례를 주어 말일성도 교회로 데려온 셈입니다.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신문과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물문 선교사들을 공격해 왔지만, 이들 대중 매체들이 존스 장로에게는 지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출판물을 내어 답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당시 신교도 목사이며 인쇄업을 겸하고 있던 그의 친형제 존 존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존은 주중에는 덴의 출판물을 인쇄해 주고 일요일 연단에서는 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덴 존스가 간행한 출판물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된 최초의 물문 정기 간행물이었습니다. 1846년에 간행된 이 간행물의 제목은 *Prophwyd y Jubili* (“50년



몇 명 되지 않는 선교사를 이끌고 댄 존스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 1845년부터 1848년 사이에 웨일즈 국민 278명당 1명 비율로 침례를 받아 교회로 들어왔다.

절의 예언자”)였습니다.

그 창간호를 보면 약간은 공격적인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주목할 만하며,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가장 놀라웠으며, 그 행위가 가장 훌륭했고, 이 이전의 모든 시대에 미치는 효과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황금 열쇠들이 인간에게 맡겨져서, 그로써 모든 보고를 열고 모든 신비를 들추어 내며,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그릇된 것들을 명백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들쭉거가 녹슬어 있던 영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감춰져 있던 새롭거나 오래된 진주와 보물들이 하나님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목전에서 다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주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모든 웨일즈 사람들이여,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 울려 퍼

지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³

그는 매우 흥미로운 선교 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논쟁에 관한 기법이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기법들이기는 하지만, 당시 그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끔 어느 마을에서 수 주일 동안 그 도시 전체를 ‘개종’ 시키기 위해 올 것이라고 광고를 했다. 그는 시장과 시 평의회, 성직자들 및 경찰 관서에 그의 의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역 교회 회원들을 통해 도시 전체에 걸쳐 수천 부의 소책자를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차역에 도착하면 종종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행정 관리들과 열광적인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⁴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에게 심한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들은 연단에서나 대중 매체를 사용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적대 행위에 대해 댄 존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대륙에 있었던 가없는 요셉 형제에 관해 항간에 난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캡틴 존스에 관한 이야기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사람에 대해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이 국가에 내려진 저주’라고 서슴없이 비난하고 있다.”⁵

대중의 여론은 이리 저리 들끓고 있었지만, 댄 존스는 그런것에 위축되기는커녕 논쟁의 목소리를 높여만 갔습니다. 그는 대중의 주의를 것처럼 강력하게 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교리가 참된지 거짓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물론인 전체와 특히 존슨 장로에 대해 일고 있는 눈에 띄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개종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매스컴에서 존슨 장로를 비난했으며,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욕설을 해댔으며,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나는 내 형제들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려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굴레를 깨뜨려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그 감미로운 자유를 맛본 사람으로서 ‘멈춰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⁶

그때 당시는 성도들을 미국 서부인 록키 산맥쪽으로 모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나무를 버리고 떠났으며, 성스러운 성전도

더럽혀진 채로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미시시피 주변에 있던 그들의 보금자리를 뒤로 한 채로 고생하며 아이오와를 지나 미주리 강변으로 가서 그곳에 윈터 쿼터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1846년이었습니다. 다음해에 첫번째 부대가 길게 행렬을 이룬 채 엘콘 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플레이트 강을 따라 현재 네브라스카로 불리는 곳을 통과하여, 오늘날 와이오밍이 된 고원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온으로 모이십시오.”가 그 부름이었습니다.

당시 개종자들은 대부분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소집하는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해 절약하고 저축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웨일즈를 떠난 최초의 성도들은 약 삼백 명이 넘었는데, 이들은 스완시에 집결하여 그곳에서 배를 타고 리버풀로 갔으며, 리버풀에서는 둘로 나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49명은 *부에나 비스타호*를 타고 먼저 떠났으며, 77명은 *하틀리호*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존스 장로는 *부에나 비스타호*를 탄 사람들과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설상 가상으로 아내 제인이 출발을 얼마 앞두고 딸 클로디아를 출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뒤에 두고 존스 장로가 먼저 갔다가 나중에 아내를 데리러 오기로 결정했으나, 나중에 아내 제인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인은 아기를 데리고 길을 떠나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에서 뉴올리언스까지는 배길로 7주가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겪은 고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비록 작았던 배에 무려 250명이 뺨뺨하게 뒹그며, 게다가 항해하는 기간 내내 먹을 식량까지 실어야 했습니다. 선박 회사에서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음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미료들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부에나 비스타호*의 승객들은 강을 운항하는 배로 옮겨 타고 세인트루이스까지 갔습니다. 그곳까지는 비록 긴 항해를 했으나 잃은 사람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그곳에서 콜레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바꿔 타고 미주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 카운슬 블러프스까지 가는 동안 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하룻만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중에 죽은 사람들을 묻기 위해 배가 자주 멈추었

습니다.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미국내의 최초의 웨일즈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이곳에서 이들은 또한 우마차 팀을 구성했습니다. 광부와 수공업자들이었던 이들은 황소를 모는 일이나 마차 바퀴 자국만을 따라가야 하는 길에서 무거운 우마차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차에 잇고 떼는 방법과 소를 모는 데 사용되는 말 및 소가 발을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1849년 7월 13일에 카운슬 블러프스를 떠나 108일 간을 여행하며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와이오밍 고원 지대에 있던 10월 18일에는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 닥쳐 이들은 60마리에 달하는 가축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10월 26일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리버풀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솔트레이크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오분의 일은 콜레라로 죽고, 그 밖에도 도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신앙이 식어 대열을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오쯤에 런던을 떠나면 같은 날 저녁에 솔트레이크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타로 이주해 온 맨 존스는 한때 맨타이에 정착해 살며, 1851년에 그 지역 초대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는 다시 고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존스 장로는 몇몇 동료와 함께 동부를 향한 장도에 올랐습니다. 솔트레이크시로부터 약 8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존스 장로는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오고 있는 웨일즈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존스 장로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침례 받은 회원들로서, 자신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서부로 가고 있고 존스 장로 일행은 웨일즈를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진정으로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헤어지기 전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에, 존스 장로는 윌리엄 모간에게 편지를 써 주며 교회 관리 감독인 에드워드 헌터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훌륭한 분의 영과 웨일즈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터 감독님... 여기에 저의 많은 동료들이 열 세번째 부대로 대륙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덴 존스는 웨일즈로 두번째 선교 사업을 떠나는 길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오고 있던 웨일즈인 성도들을 만났다. 그들은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진정으로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돈과 식량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이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면 (모간 형제)를 통해 이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후에 산페테 계곡에 있는 맨타이에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스타지의 한 사설에 따르면, 덴 존스는 “웨일즈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이라고 합니다.

웨일즈로 돌아온 존스 장로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그의 온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두번째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약 2천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때쯤 교회는 영구 이민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금 조달과 대서양을 운항하기 위해 교회에서 전세를 낸 배들을 통해, 개인당 약 45달러만 있으면 리버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돈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금 덕분에 대부분의 개종자들이 고국 땅을 떠나 시온까지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스 장로는 그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기록한 소책자를 펴냈는데, 저는 그 맨 첫머리에 나온 말을 좋아합니다.

“먼저 모든 빛을 청산하든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호의를 얻어 빛을 탕감받거나 혹은 여행 후에 갚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시온으로 이주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존스 장로는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조였습니다.

존스 장로는 1856년에 다시 많은 웨일즈 성도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손수레 부대에 속해서 그 운명적인 해에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큰 고통을 받지 않고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따르던 윌리 부대와 마틴 부대는 극심한 눈보라를 만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존스 장로는 선발 손수레 부대와 함께 가지 않고,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귀환 선교사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와이오밍에서 눈보라를 만난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발견하여 브리

덴 존스는 많은 웨일즈 성도들을 시온으로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이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캡틴 존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으며, 그의 간증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간증의 기반으로 삼았다.

감 영에게 그 소식을 전해 곧바로 구조팀을 보내 돕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존스 형제는 힘든 봉사료 인한 과로 때문에 생긴 병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의 불꽃은 점점 꺼져 갔습니다. 1861년 2월 24일, 사랑하는 아내 제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부터 채 1년이 안된 1862년 1월 3일, 51세를 일기로 그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의 친구로서, 그는 이들 예언자와 함께 했으며, 그들이 가르친 대업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열의 또한 그와 필적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1844년에 예언자와 하이람을 살해한 사람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그의 모국어로 그 비극적인 사건 내용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이야기하던 캠브리아어(웨일즈어)로 이야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간증할 때면, 매우 설득력있고 강한 간증을 했습니다.

존스 장로는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들인 엄청난 노력과, 말씀과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열의와, 바다와 평원을 가로지르는 길고도 지루한 여행, 이 모두가 커다란 희생이었습니다. 존스 장로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대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웨일즈 성도들은 그를 캡틴 존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웨일즈 성도들은 존스 장로에게서 배우고 그의 권고를 따랐으며, 존스 장로의 간증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간증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존스 장로 및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르쳐 침례를 준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회원들만도 수만 명입니다. 개종자 수로 볼 때, 덴 존스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침례를 준 선교사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그는 의를 가르치고 신앙을 세우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덴 존스의 위대한 공헌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님

의 다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의 삶에 미칠 영원한 결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5:6)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을 자세히 점검한 다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교리와 성약 15:6)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2. 19세기의 웨일즈 출신 회원인 덴 존스는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서 고귀한 모범이 된다.
3. 존스 형제는 대중 매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수천 명의 웨일즈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으며, 교회에 속한 이후로 자신의 삶을 바쳐 대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4.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때 그들의 삶에 미칠 영원한 결과에는 끝이 없다.

참고 문헌

1. 렉스 르로이 크리스티슨, “캡틴 덴 존스의 삶과 헌신”, 석사 논문 주제, 유타 주립 대학교, 1977년, 17쪽.
2. 같은 논문, 24쪽.
3. 로널드 디 테니스, 번역사, *50년전의 예언자...*(소책자), 프로보 유타: 로널드 디 테니스, 1981년 1쪽.
4. 크리스티슨, “삶과 헌신”, 39~40쪽.
5. 같은 서적, 27쪽.
6. 같은 서적.
7. 로널드 디 테니스, *시온의 부름*, 에서 인용, 프로보 유타: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연구 센터, 1987년, 77쪽.
8. 크리스티슨, “삶과 헌신”, 44쪽.
9. 로널드 디 테니스, 번역사, *Yr arweinydd i Seion(시온으로의 인도)*, 웨일즈 스완시, 덴 존스, 1855년, 1쪽.



로마의 바른 길에서



디엔 워커

이 거대한 도시는 전설적인 일곱 개의 언덕 너머로 뻗어 나가 있다. 2,500년 이상의 역사와 전설이 담긴 이태리의 로마는 이제 50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현대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다. 도시 곳곳에 복잡한 미로같이 엉켜져 있는 비좁은 도로들은 늘상 차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반면에 도시의 바로 외곽 고속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맹렬한 속도로 달린다. 택시와 버스와 철도 수송망은 이 거대한 도시에 몰려드는 군중들의 복잡함만 가중시켜 줄 뿐이다. 로마에서는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특히 말일성도 십

대들에게 토요일 오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토요일 오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다른 세 지부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학생들처럼 로마 노멘타노 지부의 15세인 아드리아나 파그나니와 16세인 마우로 살레르노, 15세인 아리아나 칸자키, 17세인 사라 나르디 및 14세인 조르지아 로마노가 세미나리 반에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은 이미 주 중에 6일 동안 학교에 다녔지만 그들이 세미나리에서 말일성도 친구들과 만나기를 고대하는 시간은 바로 토요일 수업을 마친 후이다. 이 학생들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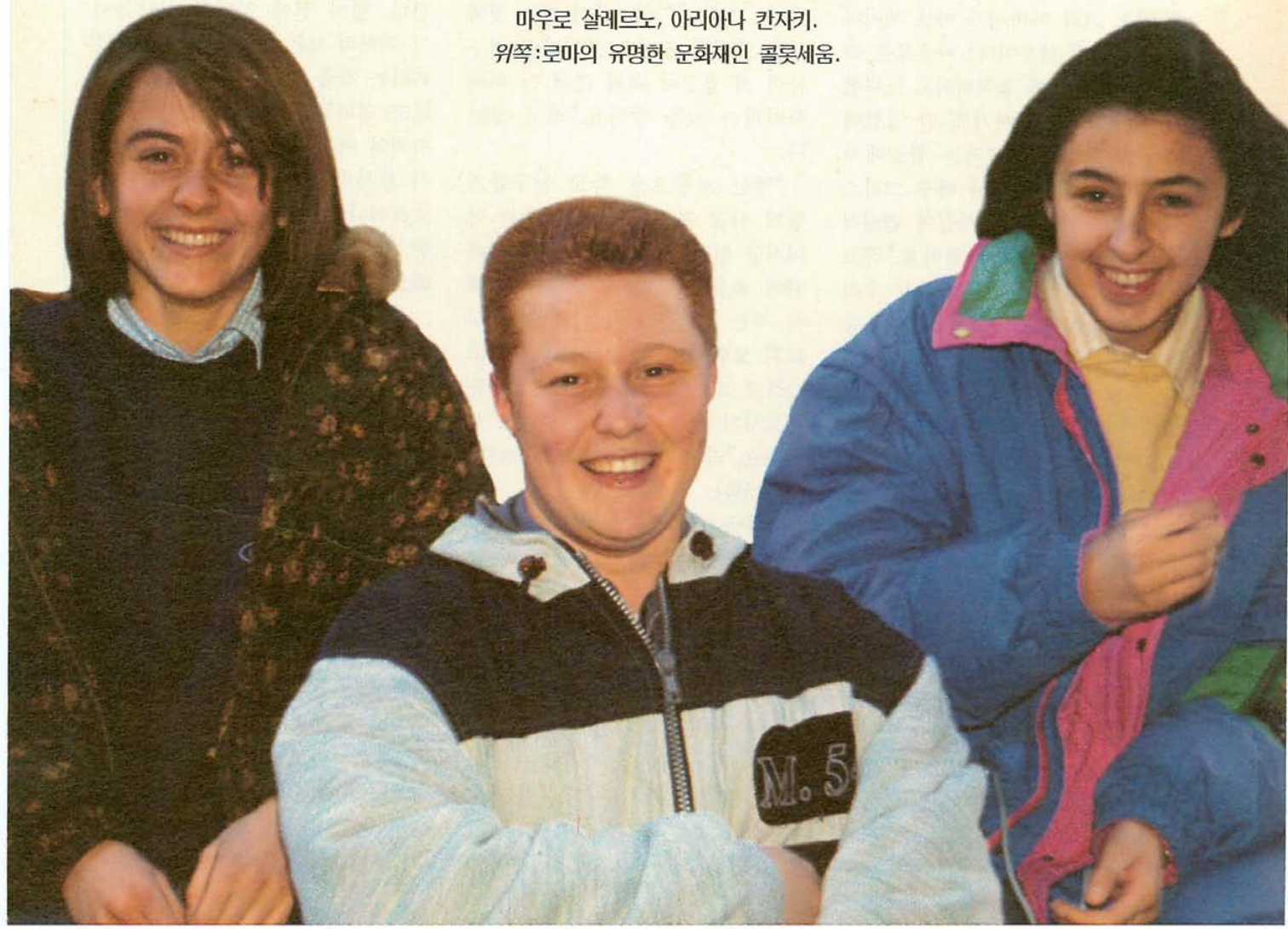
집회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으며 또 어떤 학생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두 시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는데 의존해야 한다.

아드리아나 파그나니는 이렇게 말한다.

“이태리에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빠가 우리를 그곳까지 태워다 주셔야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세미나리에 데려다 주실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로마의 고대 유적 가운데서 말일성도 세미나리 학생들은
목음을 실천하는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래의 왼쪽부터:* 아드리아나 파그나니,
마우로 살레르노, 아리아나 칸자키.
위쪽: 로마의 유명한 문화재인 콜로세움.



토요일 오후에 로마의 말일성도
 십대들은 세미나리에 참여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로마의 각지에서 온다.
 오른쪽: 크리스티나 스탈타리, 프랑코
 살레르노(세미나리 교사), 알레산드라
 피오릴로. 아래, 왼쪽부터: 조르시아
 로마노, 알레산드라 덴티.

선교 사업의 기회

마우로 살레르노는 로마 외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쉽게 세미나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데는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세미나리 교사이기 때문이다! 마우로는 최근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지명을 받았어요.”라고 마우로는 회상한다. “그 당시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어요. 저는 반 아이들에게 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세미나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는 싱긋이 웃으며 “저는 9점이 만점인 그 시험에서 8점을 받았어요.”라고 덧붙였다.

마우로가 자신의 종교에 관해 반 친구들에게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멘타노 지부의 세미나리 반원들 모두가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다. 그

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비회원 친구들에게 복음에 관해 얘기할 기회를 갖고 있다. 아리아나 칸자키는 날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지만 그녀의 학교 친구들은 모두 카톨릭 교도이다. 그녀는 “저는 제가 믿는 것에 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면 친구들이 제 종교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저는 보통으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사교 활동을 하죠. 자주는 아니지만 반 친구들이 제가 믿는 것에 관해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가끔씩 세미나리나 교회 모임이나 청녀 활동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해요. 전 이것이 조금은 선교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아드리아나 파그나니는 말한다.

마우로는 “친구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니?’라는 것이예요.”라고 말한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예언자가 있으며 우리는 회복된 신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죠.” 마우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덧붙였다. “그러면 그애들은 ‘신권이 뭐지?’라고 물어요. 저는 그들에게 신권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라고만 말해 줘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이들 로마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지부의 청녀 및 스카우트 조직과 함께 봉사 활동에도 참여한다. 얼마 전에 일단의 청남들이 그 지역의 모든 도서관에 *회복된 진리*라는 책을 갖다 준 적이 있다. 그리고 청녀들은 두 살에서 열 두 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수용한 고아원에서 봉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드리아나 파그나니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면 해요.”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범

로마의 네 개 지부에 있는 말일성도 십대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이나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렵다. 로마 지방부에는 활동적인 청녀가 스물 한 명 뿐인데, 이것은 로마의 네 개 이태리 지부와 한 개의 국제 지부 및 로마 외곽에 있는 다섯 개의 지부가 포함된 숫자이다. 지방부 청녀 회장인 로렌자 페르티카로리 자매는 이태리의 청소년들이 교회 회원으로서 직면해야 할 도전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녀는 “그러나 그들이 협조적



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는 교회 회원으로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죠.”라고 덧붙인다.

로마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과 자신의 많은 비회원 친구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로마 투스콜라노 지부 소속으로 열다섯 살 난 크리스티나 스탈타리는 “때때로 친구들이 내가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할지라도 나는 자신의 영적인 발전이 그

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거절하죠.”라고 말한다. 또한 이 청년들은 그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훗날 복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마우로는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제사에 성임되었지만 선교사로 일할 시간이 금방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토요일 오후에 세미나리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반

원들이 적을 수도 있지만 로마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복음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나 확실히 로마의 가장 중요한 길 중 일부는 토요일 오후에 세미나리 반으로 통한다. □



상 반 되 는 것

기쁨

과 기 분 좋 은 생 활

브루스 시와 마리 헤이븐
필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유혹, 행복함과
비참함이 불가피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제시해 준다.

이전에 우리 집에는 털이 긴 아름다운 새끼 고양이가 두 마리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받아 주고 비위를 맞춰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았다. 고양이들은 그 음식과 따뜻함과 상냥한 보살핌을 좋아했다. 그 고양이들이 참아야 했던 가장 최악의 장애라면 인형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정도였는데, 고양이들은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 고양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자신들의 기분 좋은 생활을 즐기며 졸리는 듯, 쉬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끄고 토요일 아침의 일거리를 지명해 주자 여덟 살 난 우리 딸은 낮은 소리로 가르랑거리는 애완 동물들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고양이라면 좋겠어요.”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차라리 고양이라면 좋을” 날들이 있지만 최초의 우리 부모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라는 영광스러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죄 없는 상태와 “기분 좋은 생활”을 버렸다.(니파이이서 2:25 참조) 물론 그것이 언제나 한가한 날들만이 아니며 또 영원토록 텔레비전 앞에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축 늘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상대되는 것은 필멸의 인생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필멸의 삶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미숙하고

우리는 최초의 부모처럼 에덴 동산에서 발견한 “기분 좋은 생활”이 아니라 상대되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 요묘한 기쁨이 있다.



범사에 상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도 장애가 있다.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같이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을
 약속하는 경험에도 상반되는 것이 있다.

시험받지 않았으며 경험이 없는 상태와 숙달되고 단련
 되며 시험받고 성숙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이다. 순진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순진
 함만 있다면 인생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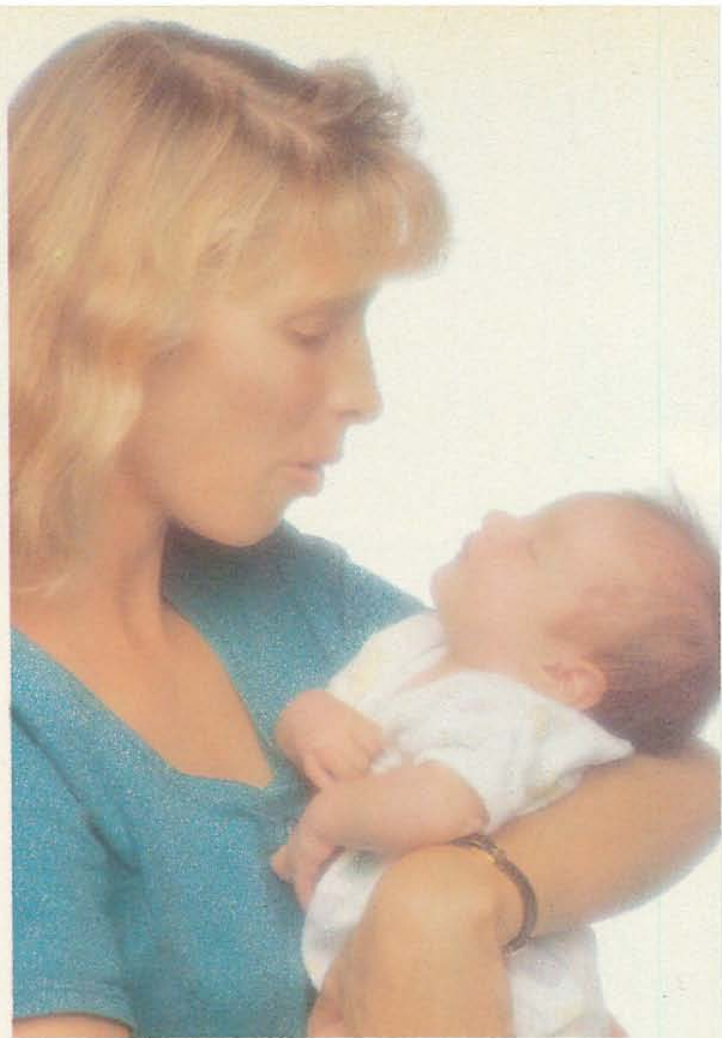
리하이가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
 이 마땅”(니파이이서 2:11)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선
 택과 자유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 대
 립되는 힘이 연합하여 올바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해 주
 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이다.

쓴 맛을 경험하지 않고는 단 맛을 알 수 없다. 우리
 가 전후 관계도 없고 기준도 없는 상태로 존재 한다면
 인생의 단 것들조차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이다. 필
 멸의 인생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허사”(니파이이
 서 2:11~12)가 될 수 있도록 의로움과 유혹, 성스러
 움과 비참함이 신중하게 혼합된 “복합적인 상태”를 제
 시해 준다.

예기치 못한 시련

인생의 가장 어려운 도전 중 일부는 그것 때문에 자
 신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방해가 일어날 때가 올 수 있다. 예를 들
 면 우리는 종종 선교사로 봉사하러 가거나 성전에서 결
 혼하는 것과 같은 기회를 갖는 대가로 큰 반대를 극복
 해야 한다. 많은 말일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
 되는 상황에서 방해에 부딪힐 때, 주의하지 않는다. 어
 느 작가의 글에 나오는 “슬픔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
 중 일부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상태이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세상의 고난을 등지고 떠난다는
 믿음으로 시온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만
 한 개척자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 그녀의 글은 “기분
 좋은 생활”을 발전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새로운 경험으
 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위안과 기쁨만 너희들을
 기다린다 생각 말아라.....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거짓 속임 하나 없고
 순결과 거룩함 자신만이
 보강됐다 생각 말아라.....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구속 사업 다 이루어
 승리로 전쟁 끝내고
 상도 얻었다고 생각 말아라.

저 암흑의 왕
 너희들이 진리의 샘을
 찾은 줄 알면 온힘을 다하여서
 미혹하려 함이니라.
 (구 찬송가 43장)

필수적인 고리

시온에는 상반되는 것이 있다. *뱀사에*, 심지어 앞으로 더 좋은 때가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조차도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신부가 결혼식 날 그녀의 어머니에게 “엄마, 전 너무 행복해요!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라고 말했다.

그 현명한 어머니는 “그래, 애야. 그러나 어떤 끝이지?”라고 질문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혼할 때와 첫 아기를 가질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부모가 된 후 우리는 리하이가 만일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머물러 자녀를 갖지 못했다면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니파이이서 2:23)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성구는 만일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면 비참함을 알지 못했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살박이나 십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해서 비참함을 몰랐다면 기쁨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기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리하이는 우리에게 그것을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25)는 한 구절로 말해 준다.

우리 경우에는 그 모두가 의미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다. 아내는 첫 임신을 했을 때, 몸이 좋지 않았다. 기쁨을 듬뿍 안겨 주기 위한 방법치고는 좀 색달랐다. 여러 달 동안 아내는 매일 얼마 동안씩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아내는 아침만 되면 입덧을 심하게 했다.

그리고 출산하기 4주일 전쯤에는 유산기가 있어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수업을 받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아내가 가르치고 있는 반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해산하는 날이 되어 아내가 사랑스러운 사내 아이를 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진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거야. 이 예쁜 아기*

*를 위해 세상조차 멈추어 선 듯한 느낌이야.*라고 생각했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날,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올 때 아내는 행복에 겨워 아기를 안고 있었다. 솔직한 성격이었던 그 의사는 그들을 보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낳고 나서 가장 편한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가장 편한 시간요?”

그는 “물론이죠. 앞으로 힘든 이십 년이 될테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십 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 자손을 통해 누리는 기쁨의 감미로운 열매를 발견해 왔다. 기저귀, 타박상, 빨랫감, 음식물, 청소, 항변, 손톱 물어 뜯기, 울음, 웃음, 걸음마, 기도 이 모든 것을 치른 후에 우리는 이해의 눈이 열렸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암몬이 다음과 같이 선교 사업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겪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또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의 기사요.*”(앨마서 28:8)

앨마의 기록에도 리하이의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슬픔과 고통과 비할 수 없는 기쁨* 사이에는 연결 고리가 있다.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없다면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니파이이서 2:23)을 것이다.

간증이 커짐에 따라

우리가 “시온에 모인” 후 때때로 겪는 장애 가운데 하나는 간증이 커가는 데서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의 간증이 커짐에 따라 직면하는 대부분의 의문은 우리가 진리에 관해 적지 않게 많이 배우고 있다는 표시다.

나는 최근에 돌아가신 칠십인 정원회의 디어도어 엠버튼 장로님으로부터 간증이 커지는 것에 관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을 때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진리의 양은 바늘 끝만한 작은 원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커짐에 따라 그 원도

여러 달 동안 고민한 후 그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해력이 증가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커진다. 우리의 지식이 계속 커져서 어떤 지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원은 최초의 조그만 바늘 끝만한 지식보다 몇 배로 더 커진 동전 크기 정도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이 위에 놓인 그 두 개의 원을 비교해 본다면 그 작은 간증과 더 큰 간증은 미지의 지식을 상징하는 하얀 여백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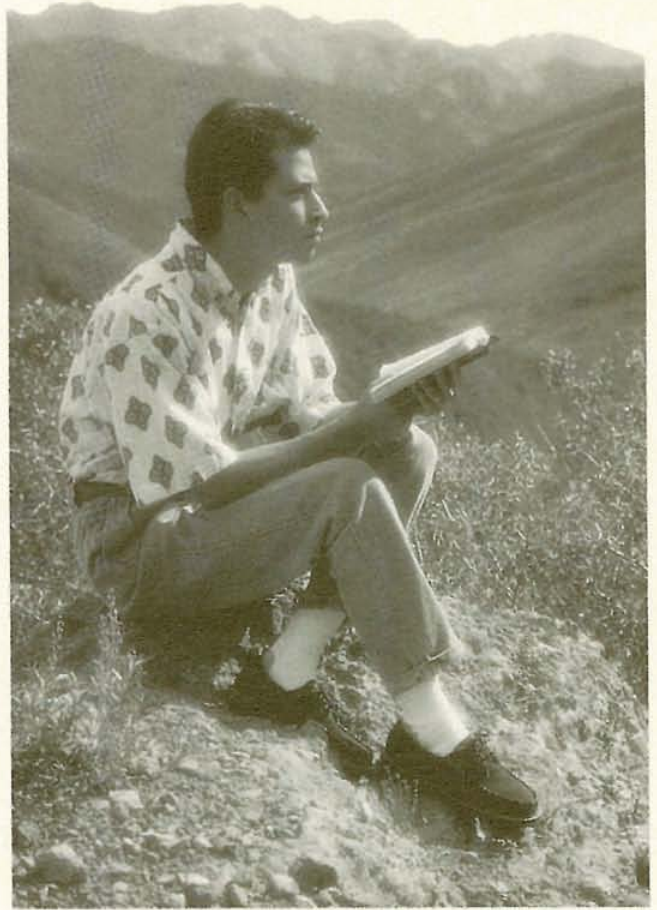
그 미지의 것에 대해 우리의 지식이 커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더 커진 원은 가장자리 둘레에 더 넓은 경계선을 갖게 되며 그것은 미지의 것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특히 교회에서의 최초의 몇 년 동안 그 방해물 겪는 "성장의 고통"에 의한 것이다.

믿는 마음

.....

어느 젊은 회원이 복음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다가 마주친 의문들이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의문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떠오르는 모든 의문에 대해 완전한 답을 찾겠다고 결심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만일 자신이 발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마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기 위한 자신의 성실성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사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해 깊고 영속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 달 동안 고민한 후 그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믿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였다. 새로운 지식에서 보다 다른 사람들과 겪는 새로운 경험에서 그의 신앙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직장에서 한 두 친구와 복음을 나누었고 와드에서 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자신의 이해력을 키워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간증을 통해 알게 된 많은 것에 대해 느끼는 새로운 감사함으로 인해 곧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한 좌절감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그는 초기에 느꼈던 기쁨을 다시 누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는 방해와 마주쳤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싸움을 통해 배웠고 더 강하게 성장했다. 그의 전환점은 그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 너무 염려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돕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평생 동안의 싸움

.....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생애에서 모든

성별된 그의 슬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조차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특별한 방해에 대한 더 뚜렷한 실례를 발견한다.

김볼 대관장은 일생을 통해 많은 종류의 장애물과 싸워 왔다. 그는 한때 자신을 늘 따라다니던 “고통이라는 친구”에게 시를 쓸 정도로 수많은 병과 싸워야 했다.

언젠가 당시 심장 외과의였던 러셀 엠 넬슨 형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김볼 대관장을 진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볼 회장은 심장 절개 수술이 절실히 필요했으나 고령으로 말미암아 넬슨 박사는 대관장단에게 수술이 성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관장단이 김볼 회장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부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수술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관장단의 권고에 따라 그 위험한 수술을 받았다. 대관장단은 넬슨 박사에게 특별한 축복을 해주었다. 완벽하게 진행된 그 수술 시간 동안 넬슨 박사는 김볼 회장이 언젠가 교회의 대관장이 되리라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한 후 김볼 회장은 그 어려움과 싸우며 마치 한밤중의 등대불같이 암으로 반을 잃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우리들 모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그의 생명이 그토록 여러 번 연장된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가!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의 몇 해 동안 그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말하거나 정상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악화된 건강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짐을 완전히 짊어질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김볼 대관장 같은 충실한 사람들도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방해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김볼 대관장이 쇠약해졌던 기간에 교회 회원들은 현대의 예언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우리는 마음

을 꿰뚫는 그 독특한 목소리로 연차 대회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날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하며 그의 용기와 가족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친숙함에 대해 애정과 존경을 보낸다.

성별된 그의 슬픔

.....

교회 회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과 통찰력 이상의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전투를 치르는 데서 오는 풍부한 의미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한 친구에 대한 순수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가 그렇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선교 사업과 청결함과 회개와 용서의 기적 및 전세계적으로 신권을 펼치는 것 등에 대해 권고한 것을 숙고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 우리는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으며 희망으로 가득찼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슬픔을 성별하셨으므로 그것은 복합적인 상태였다.

우리는 교회에 가입하거나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거나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또는 간증을 발전시킬 때 종종 경험하기조차 두려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통해 그런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이후로 내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경험들은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생활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만 온다. (니과이서 25:23 참조) 참으로 기쁨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상반되는 경험의 와중에서 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복잡한 구조의 진면목이기 때문이다. 기쁨이란 서로 상대되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전과 제약에 대처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의 일부이다. □

브루스 시 헤이픈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학부 담당 부총장이다. 그의 아내, 마리는 본부 청녀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방문 교사

로 봉사한 삼십 년

이르마 드 맥케나

나는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것임을 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봉사를 통해 여성들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증거를 더 많이 본다. 그리고 나는 이 부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완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삼십여 년 전에 칠레의 킬푸에에서 침례받은 이래로 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꾸준히 발전하는 것을 지켜 보아 왔다. 주목할 만한 발전은 나에게 작은 누룩 한 조각의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누룩의 비유를 상기시켜 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정 방문 교사도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다.

시기 적절한 방문

나의 첫번째 방문 교육 동반자는 니코치아 자매였다. 그녀와 나는 킬푸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이곳에 스테이크와 큰 지방부가



젊은 방문 교사였던
맥케나 자매

하나씩 있지만 초기에는 자매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자매들 중 한 사람인 메르세데스의 남편은 선원이라 자주 집을 떠나 생활했다. 그녀는 다섯 아이들과 함께 시냇가 근처의 지대가 높은 곳에서 살았다. 대여섯 계단을 올라 문으로 이르는 그들의 멋진 집은 기초가 튼튼했으며, 충실한 개 두 마리가 그 집을 지켰다.

비가 몹시 오던 어느 겨울에 그들의 집 가까이 있던 그 시냇물이 불어나 거센 강물로 변하였다. 그 물은 독을 넘어 주변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면서 집과 가축은 물론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갔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을 때 니코치아 자매와 나는 메르세데스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기뻐서 소리 지르며, 흥분한 채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 손녀의 이마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동반자가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급히 코트를 찾는 동안 나는 수건으로 아이의 상처를 꼭 눌렀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며칠간, 그녀는 그 강물이 점점 불어오르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깥에 묶여 있던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 본 그녀는 마당이 연못으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을 헤치고 걸어가서 가축들을 풀어 집 안으로 몰고 왔다.

그리고는 열 살과 열 두 살쯤되는 두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게 한 뒤, 그들 셋은 열린 문을 통해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하나씩 하나씩 물에 잠기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했다. 물은 마룻바닥에서 두 계단 떨어진 곳에 멈추고는 더 이상 차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동반자와 내가 용기를 내어 메르세데스에게 가서 그녀의 영감 어린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던가!

메르세데스는 몹소 헌신적인 방문 교사가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동반자인 올라 바로스스는 저능아인 부족한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어느 연로한 자매를 방문했다. 어느 날 메르세데스와 올라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딸은 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피곤해서 누워 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깨우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방문 교사들이 도착했다.

내가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는 올라가 그 자매를 맞사지해 주는 동안 나를 데리러 뛰어왔다. 우리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는 의사가 올 때까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의사를 부르고 집에 질린 그 딸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방문 교사들이 갔던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

또 동반자와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두 자매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두 자매 모두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 오기를 몹시 원했으며 우리들이 방문할 때마다 자리를 함께 하자고 어머니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언제나 통명스럽게 “난 바빠.”라고 하거나 또는 “할 일이 많아.”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너무 춥고 지쳐서 방문을 끝내야 했던 어느

추운 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 쌀쌀한 여성의 집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안색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어린 손녀가 막 넘어져서 이마를 다쳐 눈썹 위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동반자가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급히 코트를 찾는 동안 나는 수건으로 아이의 상처를 꼭 눌렀다.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는 그 할머니를 위로하며 다른 어린 소녀를 봐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결국 이 여성은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방문 교사가 되었다.

강한 느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 손 안의 도구로 만드실지 예견할 수 없다. 나의 동반자가 그 도시를 떠나 있던 어느 해, 나는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가정 방문을 하러 다녔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과자를 구워서 셀로판지로 싸고는 그것들을 빨간 리본과 솔가지로 장식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작은 선물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강한 느낌을 받고 여분의 과자 꾸러미를 하나 더 준비했다.

여러 집을 방문한 후 우리는 결혼한 이들의 가족과 함께 사는 한 자매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모두 회원이었다. 그곳에는 몹시 지쳐 보이는 또 다른 나이든 여성이 세탁물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리타였으며 손 빨래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는 나는 그녀에게 따로 만들었던 작은 과자 꾸러미를 건네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자신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선물이 될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또 그녀가 이 세상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자신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것이 자기에게는 유일한 선물이 될거라고 말했다.



의 딸이며 만일 그녀가 그분을 열심히 찾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팔을 벌리고 맞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밖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얼굴이 밝아져서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했다.

다음달,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가리타는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을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난 지난 주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편지와 기도

.....

우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을 매달 방문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역시 회원이었는데 병들어 있었으며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곤 했다. 딸이 이사를 간 후에도 그 형제는 우리가 계속 방문해 주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를 병원에 두 번 데려다 주었으며 그가 퇴원한 후에도 거의 3년 동안 그를 방문했다.

이전에 그가 일했던 선박 회사는 병 때문에 그를 해고시켰다. 그 형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선박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며 그는 그것이 몹시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그는 이전 감독관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간청했지만 허사였다. 나는 그 회사의 고위 간부인 관리자에게 그의 상황에 대해 편지를 써 보내자고 제안했다.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한 후 나는 그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정성들여 작성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또 그의 이름을 성전의 기도 명부에도 올렸다.

진실로 주님은 그의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뒤 얼마 후, 그는 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소요 경비를 소급해서 지불해 주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한때는 우리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던 그의 아내도 우리에게 호의를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 교회에 가입했다. 그녀는 우리가 자기 가족을 충실하게 방문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결심을 했노라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침례받은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그녀의 남편이 죽었으며,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녀 곁에 있어 주었다.

그 도시의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던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놀라운 경

험들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매들을 돕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귀기울여 주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단한 메시지들을 전해 주었다. 내게는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느낌이야말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기쁨으로 빛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우리는 94세인 한 자매님을 방문하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으로 나다닐 수 없으며 매달마다 자신의 조그마한 집 창문 곁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이야기 할 사람이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우리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며 결코 그녀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자매들

.....

한때 나는 내게는 방문 교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큰 문제 거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혼자 있었다. 남편은 바쁘게 쇼핑을 하고 있었고 딸 하나만 제외하곤 모든 자녀들이 결혼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 딸도 올 수가 없었다. 어린 손자녀들의 포옹이 없는 그 집은 너무나 쓸쓸했다. 나는 평소에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엔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뺨 위로 눈물이 흐르는 채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의 방문 교사였다! 사랑하는 나의 자매들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나와 함께 나누기 위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주님이 몸소 내가 혼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날 때쯤엔 내 기분은 완전히 바뀌어졌다. 나는 불을 켜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으며 테이블을 장식하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으며 우리가 둘다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다.

이 아름다운 자매들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매달마다 모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수많은 자매들이 이 지구의 거리와 골목길을 누빈다. 그들은 오직 사랑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지명받은 자매들의 집 문을 두들겨서 밝은 미소와 “우리는 자매님의 방문 교사입니다.”라는 유쾌한 말로 자신들을 소개한다. □

성신의 은사

예 수님이 침례의 물에서 나오실 때 성신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임하였다.(마태복음 3:16 참조) 진리와 순결함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성신의 은사에 대한 축복을 상기시켜 주는 아름다운 표상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받는 모든 사람은 안수를 통해 이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된다.



그림 크리스티 모리스

성신은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해 주시는 분임

성신은 위로자요 인도자요 교사며 증인이다. 성신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온갖 진리를 알” 수 있다. (모로나이서 10:5) 우리는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

또한 성신은 경전과 예언자의 참됨을 확증해 준다. 스페인 카디즈의 플로리 코보 데 롬브레라스 자매는 물문경을 읽으면서 “그 책이 참된지 요셉 스미스가 정말로 예언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졌다.

“저는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네다섯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침대 한 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

님 아버지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응답은 강한 힘으로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증거해 주었는가?

• 여러분은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성신은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

엘마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엘마서 5:26)라고 우리들 각자에게 엄숙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 왜

냐하면 성신은 우리가 의로울 때에만 임하기 때문이다. 성신은 우리가 겸손하고 충실하며 순종적일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작고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몇 년 동안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았던 팜 자매는 매일 자신의 생활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것이 참되다고 깨달았다. 그녀는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더 훌륭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의 신앙과 소망과 회개로 말미암아 성신은 그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어서 결국 성전 축복을 받도록 이끌었다.

성신을 동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화평으로 채워 준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13)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며 그것의 속삭임을 따를 때, 우리는 인도와 도움과 위안과 확증을 얻게 된다.

• 성신은 어떨 때 우리의 생활에서 물러 가는가?

• 우리는 어떻게 성신을 다시 동반할 수 있는가? □

스펜서 더블류 김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

1972년 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서리로 봉사하고 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건강이 몹시 나쁜 상태에 있었다. 인후암이 재발한데다, 동맥 경화증과 판막 부전증으로 심장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그는 77세였다. 코발트 요법으로 암의 진행이 멈추었으며, 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복잡한 심장 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김볼 대관장은 담당 의사와 대관장단의 해롤드 비리 부대관장 앞에서 피로한 기색으로 “저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세상을 하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나이에 수명을 연장시켜 보겠다고 그토록 분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리 부대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볼

형제님, 형제님은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돌아가서서는 안됩니다! 형제님은 건강을 돌보아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볼 대관장은 포기하지 않고 병을 이겨냈다. 그는 임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변화의 시기

수술은 성공하였다. 그가 회복하고 있는 동안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운명하였다. 18개월 후, 해롤드 비리 대관장도 운명함에 따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교회의 제12대 대관장이 되었다. 그의 연세와 병력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볼 대관장이 “교회를 돌보는”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의 재임 기간은 원기 왕성한 기적의 기간이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김볼 대관장의 12년간의 재임 기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김볼 대관장님)이 언제나 훨씬 앞에 서서 교회가 뒤쫓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우리를 손짓해 부르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좀더 빨리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도록 목표를 주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온 땅, 세상의

어느 날 밤 14세의 스펜서는 석탄 기름 등불을 켜고 창세기 제1장을 읽었다. 1년 후 그는 ‘그 두껍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다.



모든 구석,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영혼, 온 세상, 많은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김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독재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선교사들이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수는 두 배가 되었으며, 교회 회원 수도 거의 3백만 명에 달했다. 김볼 대관장이 운명할 당시에 있었던 스테이크의 60퍼센트가 그의 대관장 재임 기간 동안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는 성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성전 수는 15개에서 37개로 늘어났으며, 그 외에도 건축 중인 성전도 몇 개 있었다.

김볼 대관장은 교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으며,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요일 모임 계획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새로운 영문 찬송가 책이 발간되었으며, 이어서 그 찬송가 책을 기준으로 다른 많은 언어로 된 찬송가 책이 출판되었다.

김볼 대관장은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으며, 전후 참조 성구가 더욱 많이 추가된 표준 경전 신판과 더욱 잘 정리된 주제별 지침(Topical Guide)을 출판하였다. 개인 및 가족에게는 경전 공부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전에 두 가지의 제시, 즉 요셉 스미스가 본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교리와 성약 137편)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본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교리와 성약 138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고 확대되어 더욱 많은 총관리 직원들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나라 출신의 형제들이 그 정원회에 부름받았으며, 김볼 대관장을 비롯한 모든 총관리 직원들은 더욱 많은 곳으로 여행하였다. 6대주의 여러 도시에서는 지역 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어찌면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78년 6월, 주님께서 인종에 관계 없이 합당한 모든 형제는 신권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계시해 주셨던 순간일 것이다.(교리와 성약 선언문 2 참조) 우리는 그의 속삭이는 듯한 선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훌륭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속삭여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김볼 대관장도 그렇게 속삭여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암으로 인해 성대를 대부분 잘라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는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영감을 받은 권고를 열중하여 들은 적이 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하나님께서 귀기울여 들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저는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열중해서 경전을 읽으면, 그 거리는 좁혀지며 저는 다시 영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심어서 경작할 것을 권유합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117쪽)

“우리는 여러분이 집과 농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극기하는 법을 배울 때, 고통을 통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개입되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가정의 밤 자료집, 238쪽)

“기도하는 민족의 광경은 핵폭탄의 폭발보다 더 장엄하고, 더 강렬합니다.”

“안전은 무진장한 부가 아닌 그칠 줄 모르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이시고, 저의 구세주요,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의 시기

주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스펜서 더블류 김볼을 준비시키셨고, 그의 탁월한 재능을 알고 계셨으며, 많은 시현을 통해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그와 같은 성장과 흥분의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다.



김볼 대관장은 사람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연약해져 있거나 역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1894년 3월 2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앤드류 김볼과 올리브 올리 김볼의 여섯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가 세 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애리조나주 남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부름받음에 따라, 가족이 나홀이나 걸려 남부로 이주했다.

스펜서는 힐러벨리에서 무력무력

잘 자랐지만, 슬픔을 맛보기도 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겨우 열 한 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그곳에서 그의 누이들 가운데 네 명이 사망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꿈이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는 미국 중부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후에 당시 학교 교사였던 카밀라 아이어링 자매와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다. 그는 직접 보험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음악 책임자, 스테이크 서기 및 스테이크 부장 등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아 봉사하였다.

보상받은 인내심

우리는 김볼 대관장이 어렸을 때 겪은 경험을 통해 그의 인품과 능력에 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다. 스펜서가 열 네 살 때 어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연사는 회중 가운데 성경책을 다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그는 손을 들 수 없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임이 끝난 그날 밤에 저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집으로 걸어가 곧

장 집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뒤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탄 기름 등불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제1장을 읽었습니다. 일년 후에 저는 그 두껍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장, 264쪽)

그는 그의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는 습관을 길렀으며, 그 결과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1943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고 당혹해 하였으며 더욱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194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사도가 된 후 처음 행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곱이 ‘새벽까지’ 밤새 축복을 구하던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축복을 구하며 85일간 기도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85일 동안 날이 밝을 무렵이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고 강화해 주며 제게 주어진 이 큰 책임에 합당하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978년 6월에 계시를 받아 발표한 내용에서도 그의 인내심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성실한 이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기 위해 성전의 기도실에서 주님께 여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며, 교회의 모든 성실하고 합당한 형제가 성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약속된 날이 도래했음을 계시를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선언문 2)

어쩌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인내심과 불굴의 의지력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자질이였을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직후 일단의 군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김볼 장로는 그러한 부름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겸손함과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제게 내세울 만한 재능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저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도 쓸모는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활력과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과 “실천하라”라는 그의 좌우명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는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대해 품고 있던 커다란 사랑이었다. 사실 그는 스스로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도 자주했다.

김볼 대관장은 레이맨인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나 특별히 레이맨인들에게 더욱 그러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있었을 때, 그는 인디언 선교부를 책임지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후에는 남미 선교부까지도 책임지게 되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김볼 장로에게 전세계의 인디언들을 돌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의 친절한 행위와 인정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다. 어느 눈오는 날, 많은 여객기들이 결항하여 발이 묶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북적대고 있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두 살 된 아이와 함께 표를 사려고 길게 늘어선 줄에서 있었다. 그 어린 아이는 피곤한데다 배도 고팠지만, 그 어머니는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 줄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바닥에 앉아 칭얼거리고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앞으로 갈 때마다 발로 아이를 밀어서 움직였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중얼거리며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을 들은 그 젊은 어머니는 울고만 싶은 기분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그녀에게 다가와 “부인,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달려며 껌을 한 개 쥐어 주었다. 그런 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처한 처지를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은 그녀가 맨 앞으로 가서 표를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비행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그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난 그분의 성함도 모르는데.”하고 생각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보았으며 그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김볼 대관장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역 대회를 열고, 성전을 헌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사랑하였으며,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합당한 남자들이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계시를 구할 수 있었다.

장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번은 남미에서 한 감독이 김볼 장로에게 찾아와 스테이크 대회 기간에 병원에서 숨겨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급히 가서 계

단을 뛰어올라 복도로 들어갔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를 그 감독은 이렇게 회고했다.

“놀랄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볼 장로님은 매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침착한 모습으로 병실로 들어가 그 환자를 축복해 준 뒤 병실에서 나왔다. 문을 나서자 마자 그들은 다시 차로 뛰어가 대회장으로 급히 돌아왔다.

병원에서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김볼 대관장이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 있는 동안 훨씬 중병을 앓고 있는 그로부터 축복과 위로를 받았다. 한때 그는 “제 삶은 제 구두와 같이 봉사하느라 다 닳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한 적도 있었다. 그는 아주 많은 시간을 죄를 지어 연약해져 있거나 역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그들과 나눈 슬픔과 기쁨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용서가 낳는 기적과 기적을 낳는 신앙을 저술하였으며, 이 책을 통해 그 후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의 회원들이 영감을 받아 왔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

만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77세의 연령에 사망했었다면 그는 선교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업가로, 스테이크 서기로, 스테이크 부

장으로, 그리고 30년간의 사도로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오랜 투병 생활과 친절한 행위와 사랑이 가득 찬 지혜 또한 그를 기릴 만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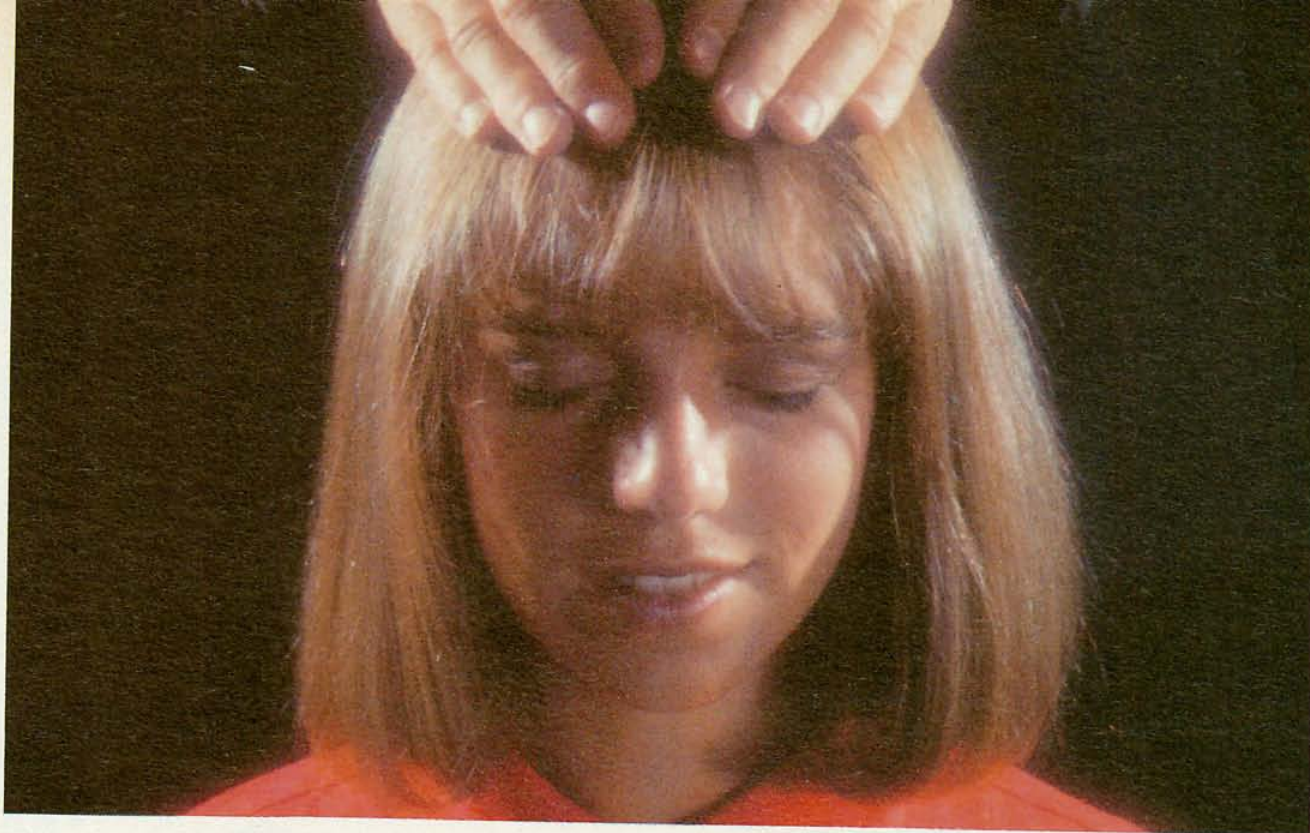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여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때에, 그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을 받았다. 한번도 꿈꿔 보지 않았던 부름을 받은 뒤 수많은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축복을 안겨 주는 방법으로 그 부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참고 문헌

1. 에드워드 엘 김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교회 대관장*에서, 레오나드 제이 애링튼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2. 에드워드 엘 김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물문 백과 사전*, 제4권,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92, 2: 785~789.
3. "스펜서 더블류 김볼", *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교회사에서 발췌한 독서물*에서,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0년.
4. *엔사인*, 1985년 12월호, 8~41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생애, 1895~1985년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95년		3월 28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
1898년	3세	김볼 가족이 애리조나주의 대치로 이주.
1906년	11세	10월 18일 : 어머니 올리브 김볼 사망.
1914~1916년	19~21세	미국 중부 지역에서 선교 사업.
1917년	22세	11월 16일 : 카밀라 아이어링과 결혼.
1938년	42세	마운트 그레햄(애리조나주) 스테이크 부장이 됨.
1943년	48세	10월 7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됨.
1957년	62세	인후암으로 성대의 1½을 제거함.
1962년	74세	용서가 낳는 기적 발행.
1970년	75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서리가 됨.
1972년	77세	심장 수술을 받음.
		7월 7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됨.
1973년	78세	12월 30일 : 교회의 제12대 대관장으로 성별되고 성임됨.
1974년	79세	4월 6일 :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됨.
1976년	81세	4월 3일 : 성도들이 추가된 계시를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임.
		10월 2일 :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됨.
1977년	82세	복음 전파를 위해 폴란드 땅을 헌납함.(이를 위해 교회 대관장이 방문한 것은 철의 장막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78년	83세	6월 8일 : 신권이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에게 주어진다라는 계시를 발표함.
1979년	84세	말일성도 킹 제임스 판 성경이 출간됨.
1980년	85세	3월 2일 : 통합된 모임 일정이 수립됨.
1981년	86세	물문경 합본 신판이 출간됨.
1985년	90세	8월 : 새로운 영문 찬송가가 출간됨. 11월 5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아만다 민스

감독님과 나는 작기는 하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 감독님의 사무실에 함께 앉았다. 감독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말하였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 축복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작은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감독님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나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위한 추천서를 주었다. 나는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최근에 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실까?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단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실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답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곤 하였다. 청년 공과 시간에 우리 교사는 반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나의 초등학교 교사는 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너는 특별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러한 말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나를 지적하실 수도 있을까? 그분은 나의 성격과 개성에 대해 애정을 갖고 계실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가서 축복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작은 사무실 쪽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그분은 상당히 연세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미소띤 얼굴과 부드럽고 친절な 눈을 가지고 계셨다.

축복사님은 내게 축복사의 축복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내 머리에 얹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축복의 말씀을 시작하였다.

나는 그분이 말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귀담아 들었다. 나는 강한 영을 여러 번 느꼈는데 그 느낌이 강하여 그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토록 듣고자 원했던 대답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를 잘 알고 계시며 또한 그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확인하여 주노라.” 축복사님은 또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나는 완전한 사랑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알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



출애굽

하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써
조명해 본 글

에스 켄트 브라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내라는 신성한 사명을 주셨을 때,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 내기 위해 어느 정도로 큰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몰랐을 것이다. 애굽인들에게만 역병이 내리고, 죽음의 천사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받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통과하였으며 사막에서 물과 만나를 얻었으며, 또한 시내산에서 위대한 계시도 받았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주님께서 진실한 분이며 또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출애굽은 속죄

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업적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것이 보여 준 완벽한 힘과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확인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해 내시며, 지지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볼 수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고대 미대륙에

왼쪽: 이집트의 루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의 거대한 석조물에 있는 고대 조각. *아래:* 기자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비해 보잘것 없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살았던 예언자, 지도자 및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신앙을 키워 주기 위해서 종종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참조로 사용하였다.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세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박해로부터 탈출을 할 때마다 이러한 교훈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듭 반복되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모세가 초기에 바로에 대해 시도한 호소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번째는 바로가 노예들의 노동량을 증가시킨 일이었다.(출애굽기 5:6~19 참조) 두번째는 이에 대한 결과로 히브리인들이 굶어 부스럼을 만든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을 한 것이며(출애굽기 5:20~21 참조), 세번째는 모세 자신이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실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다.(출애굽기 5:22~23)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야 할 길이 옳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인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이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출애굽기 6:1~8)라는 말씀을 주셨다.

스스로를 1인칭으로 칭하면서 주님은 자신이 만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당시에나 미래에나 이스라엘인들의 안녕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로가 이스라엘인들과 맺은 오랜 합의 사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인들은 사람과 또 사람

들의 약속이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출애굽기 5:14~16 참조)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갈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파리 떼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일련의 재앙들을 이스라엘인 노예들과 애굽인들에게 분명한 차별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출애굽기 8:23; 9:4~7 참조) 주님께서 주신 사소한 지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막강한 권세가 보여졌다.(출애굽기 12:3~30 참조) 더욱더 극적인 것은 나중에 병거를 몰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쫓아와 위기를 맞았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수호 천사와 “구름 기둥”을 보내어 그분의 전지 전능하심을 보이신 것이다.(출애굽기 14:8~20 참조)

최종적인 구원은 바다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연을 주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출애굽기 14:15~16, 21~31 참조) 이러한 권세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잠시 동안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애굽기 14:31) 비록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롭게 얻은 신앙이 그들이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주님께서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임을 보여 주셨다.

자신이 진실한 하나님임을 보이시면서 주님께서는 예전에 노예로 있던 이들과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셨다. 주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한 세대가 지나

이스라엘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명기 4:33, 35).

이러한 경험과 출애굽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은 이후의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과 주님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명절은 마치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자신이 막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인 것처럼 치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많은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긴 세 가지 이야기를 암송하는데 이 업적들은 이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암송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신명기 6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묻는 경우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21절) 또 이스라엘인들이 땅에서 거둔 첫 산물을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가져 오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고해야 했다.(신명기 26:5~9 참조)

여호수아는 죽기 얼마 전에 세겜에서 자신이 주재한 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 내시면서 보이신 위대하신 업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또한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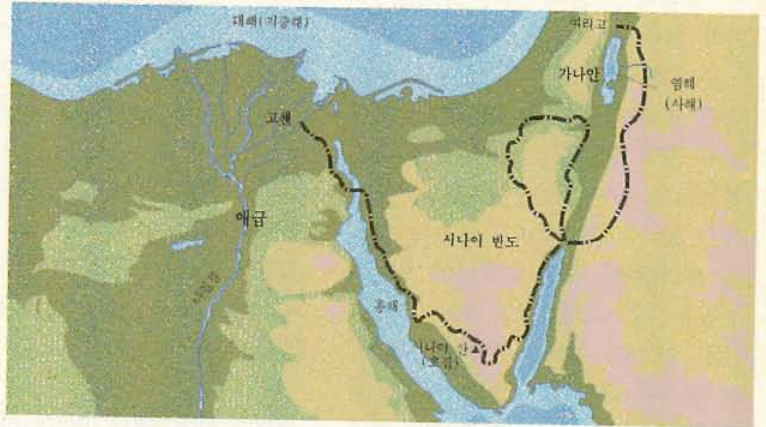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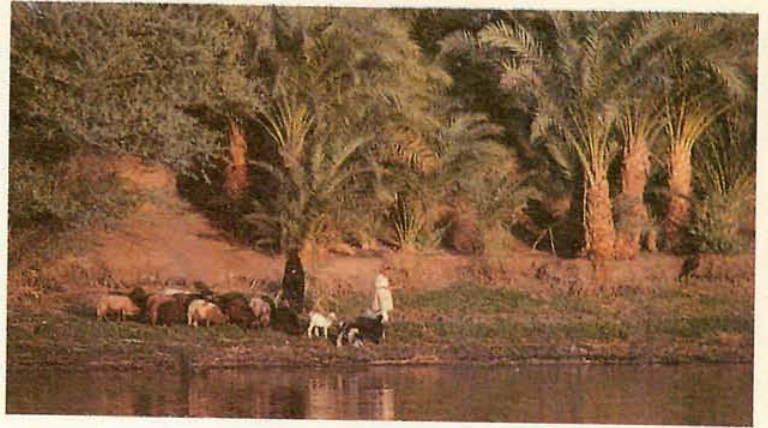
래에 준행할 기념 의식의 방법을 보여 주었다.(여호수아 24:2~14 참조) 간략하게 말해 출애굽이 이스라엘인들의 가슴에 남겨 준 영향은 훗날의 세대에서도 지워져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출애굽과 물몬경

물몬경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인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권세와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게 소망과 신앙,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간증을 훗날 읽게 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니파이는 자신의 신성한 맹세의 핵심 부분에서 출애굽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허가하시, 독사에게 물린 백성들이... 낫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 하였느니라.”(니파이이서 25:20 참조)

니파이는 다루기 힘든 형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리하이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때에, 약속을 실천할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출애굽을 들었다.(니파이일서 17:23~42 참조) 힐라벤의 아들 니파이도 “개다이엔톤의 무리에 속한 판사들이” 일으킨 논쟁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위에서부터: 나일강가에서 양을 돌보는 모습. 출애굽의 예상 경로. 모세가 주님의 권세로 갈랐던 홍해. 오늘날의 베두인 유목민들. 이스라엘인들은 광야에서 이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증거로 출애굽을 사용하였다.(힐라 맨서 8:1, 11~13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물몬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일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탄식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레인맨인들의 압제로 인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니파이인들의 첫번 상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니프의 인도 아래 제이라헤플라를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주님께 호소하였던 첫번째 사람들은 교회 장로인 엘마의 인도 아래 노아 왕으로부터 도망쳐 힐람 땅에 머무르고 있던 450명이었다.(모사이야서 23:1~20 참조) 나중에 그들은 레인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였다.(모사이야서 23:21~24:25 참조) 두번째 사람들은 립하이 왕의 백성들로 그들은 몇 차례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나 레인맨인들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모사이야서 21:2~13 참조) 패배의 여파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으며 온종일 저들을 고난에서 구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모

사이야서 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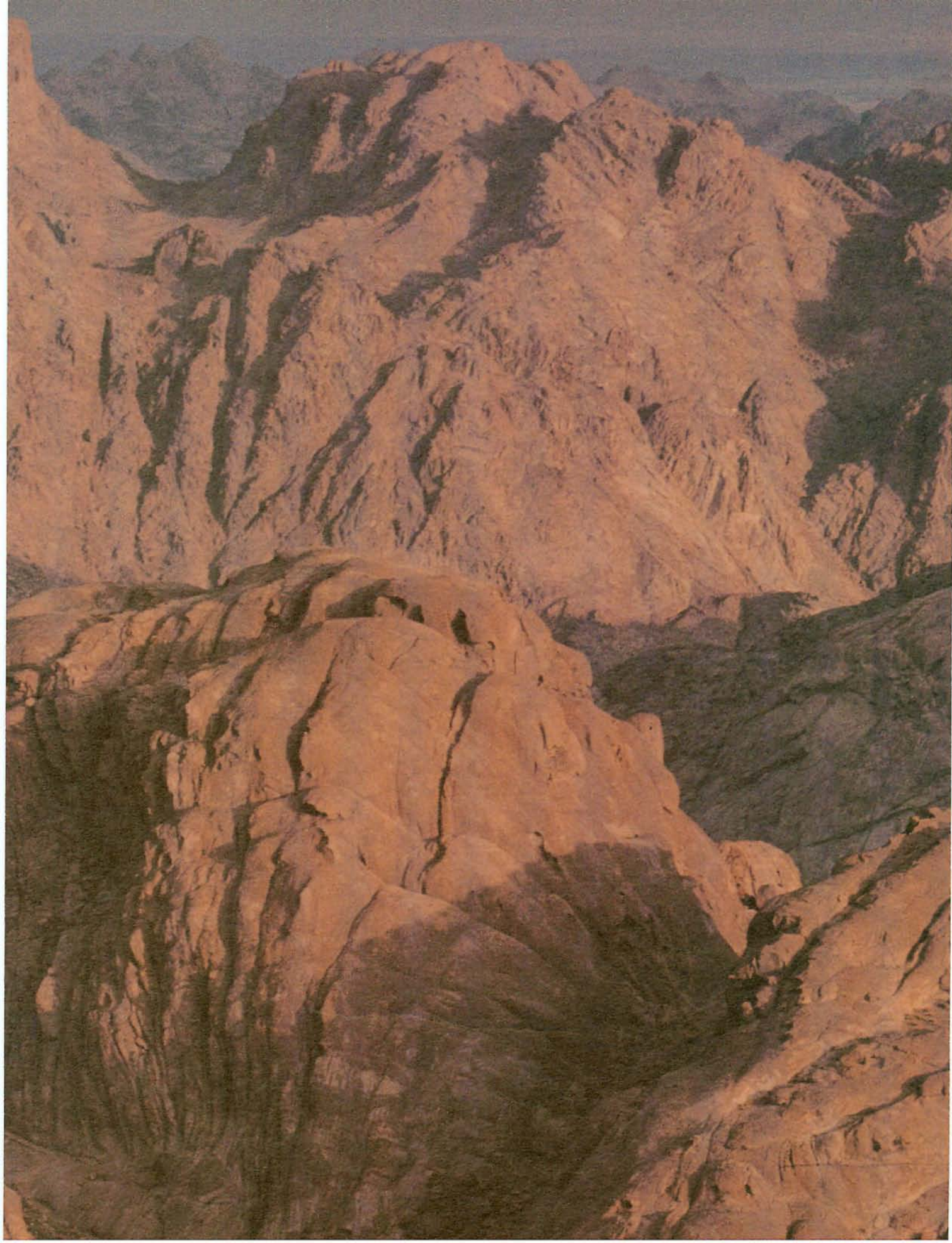
위의 두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임을 보이기 위한 증거로 출애굽을 이용하였다. 립하이 왕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시며... 그 밖에도 저들을 위하여 온갖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모사이야서 7:19) 라고 말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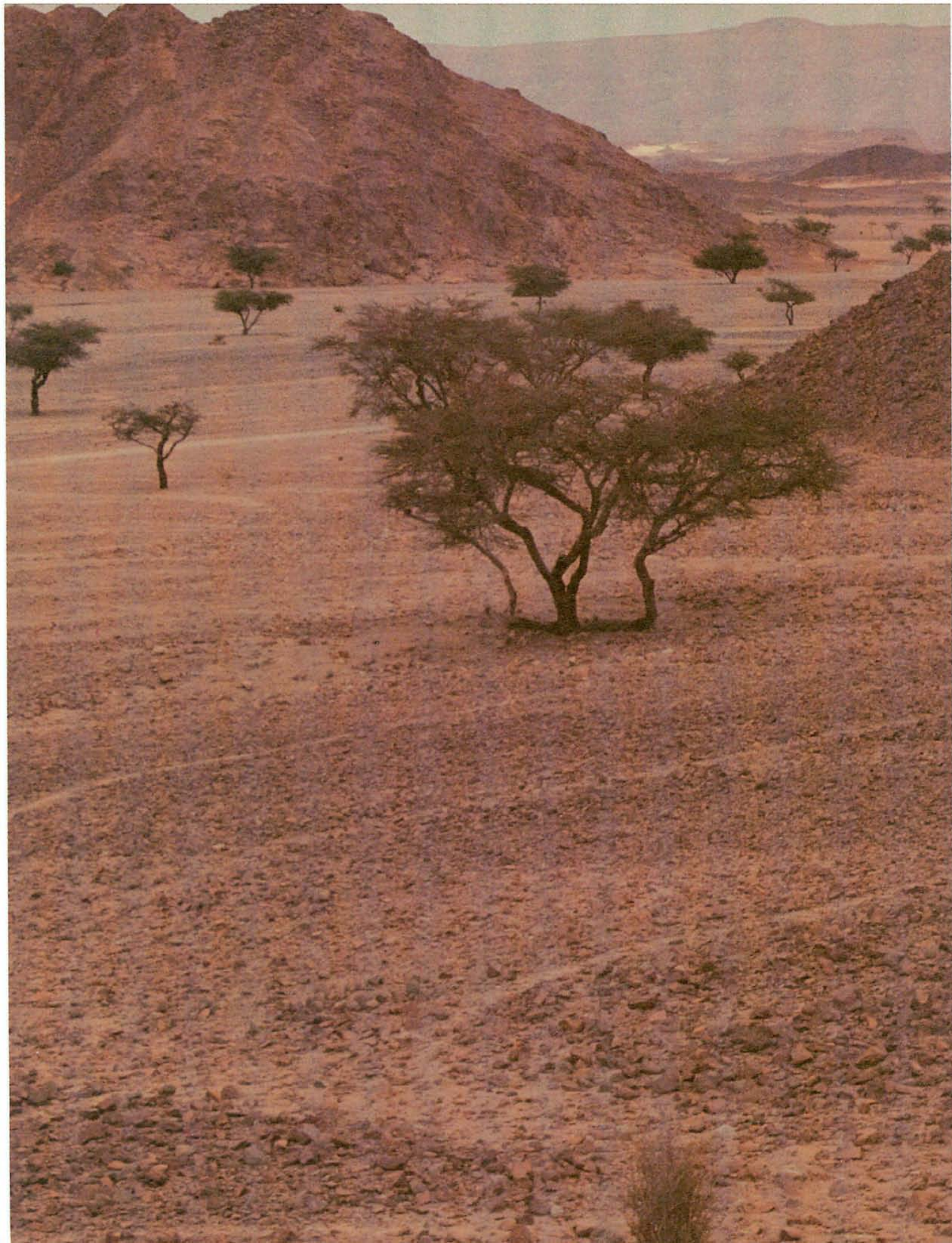
그러나 출애굽은 속박 상태에 있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출애굽은 이들에게 또한 탈출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각 경우에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건들을 조정하고 또 탈출의 길을 열어 주셨다. 예를 들면, 주님은 고대에 재앙들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오른쪽: 시내산에서 바라본 전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스라엘인들은 일 년 이상을 시내 광야에 머물며 그들의 이동 성막을 만들었다. **아래: 정상으로 가는 길.**







했던 것처럼 속박하고 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다.(모사이야서 21:15; 23:29 참조) 최종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특별히 “양과 가축”을 몰고 기적적으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모사이야서 22:10~11; 23:1; 24:18 참조)

모사이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를 구원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아직까지도 그 속박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나, 보라... 주께 간절히 간구하였음에 속박에서 저들을 구하시었으니”(모사이야서 29:19~20) 분명한 것은 림하이 백성이나 엘마를 따랐던 무리나 모두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나의 본보기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애굽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었다.

출애굽과 속죄

속죄 이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퇴색하였으며, 그 대신에 속죄가 신앙과 소망의 주요 상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속죄 이전의 물몬경의 저자들은 속죄의 결과를 좀더 충분히 빛나게 할 목적으

로 출애굽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야곱은 출애굽과 관련된 긴 설교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속죄의 결과를 “구원”과 “탈출”에 비교하였다. 그는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였는데 말일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그 예언에는 일부 성경 해석자들이 “두번째 출애굽” 곧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을 “두번째로 회복”하는 사건이 담겨져 있다(니파이이서 6:14)

출애굽과 관련된 용어들을 속죄에 적용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 음흉한 괴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 진정 저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지라. 이 죽음 곧 내가 이야기한 바 세상의 죽음이 죽음의 사슬을 풀었으니 세상의 죽음이라 함은 무덤을 말함이라”(니파이이서 9:10~11; 또한 이사야서 50~52장 참조).

엘마 이세는 또한 속죄를 출애굽과 연결시켜, 아들 힐라맨에게 자신의 개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죽음에서 나를 구해 내셨느니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는 늘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또 주님께서 “조상들을 예루살렘에서 구출해 내셨으며,

역시 그의 영원하신 권능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속박과 종된 것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엘마서 36:27, 29)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야곱과 엘마에게 출애굽과 속죄는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출애굽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육체적인 탈출을 가져다 주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속죄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다.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집합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과 관련된 표현법이 사용된 이사야의 예언을 구세주께서 직접 니파이삼서에서 인용하셨다. 예를 들면 “네 목에 걸린 사슬을 풀어 버려라. 오 속박당한 시온의 딸들아”와 같은 구절로, 이는 분명히 노예 상태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이사야 52:2; 니파이삼서 20:37)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라는 구절은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과 합류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사하였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이사야 52:4)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탈출하였던 기억을 되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지형인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를 통해
영적으로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신성한 권세를 보여 주셨다.

살려 주고 있다.(이사야 52:11; 니파이삼서 20:41) 하나님의 백성이 두번째로 사악함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라”라는 구절은 출애굽시 일어난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이사야 52:12; 또한 니파이삼서 20:42 참조).

출애굽과 회복
.....

비록 속죄가 출애굽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힘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출애굽을 이용하셨다. 윈터 쿼터스에서 피폐해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다. “네 원수를 두려워 말라.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내 원대로 저들에게 행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6:30) 주님께서는 또 한 증거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말일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의 팔을 폈느니라”(교리와 성약 136:21~22)

예레미야는 말일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예레미야 23:7~8)

출애굽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래에 우리가 신성한 인도를 받으리라는 것, 곧 고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

에스 켄트 브라운은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과 교수이다.

아래:강물이 하나님의 권세로 나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여호수아 3:16~17) 갔던 일이 일어났던 요단강. 오른쪽: “젓과 꿀이 흐르는”(출애굽기 3:8)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약속의 땅.





네가 가르칠 차례야

셰인 바커

교 실문 앞까지 가면서 라이언 페리거는 줄곧 싱글거렸습
니다. 라이언은 우리 집사
정원회 회장이었는데, 이번은 그가 우
리 신권회 공과를 발표할 차례였습니
다.

“오늘 우리는 좀 색다른 것을
하겠어요. 내가 조각 맞추기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워너
형제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동안 맞추며 놀아도 된다고
하셨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것을 모두 바닥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좀 도와주겠어요?”하고
말했습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조각 맞추기 게임일지
라도, 항상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모범
적인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있는 조각 맞추기 게

임은 사실은 세 살 내지는 네 살짜리
유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서른
개 정도의 큰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
는데, 우리는 식은 죽 먹기로 그것을
해치웠습니다. 문제는 정가운데 있는
커다란 조각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러자 누군기가 “이게 뭐야, 조각
하나가 없잖아!”하고 반박을 하고 나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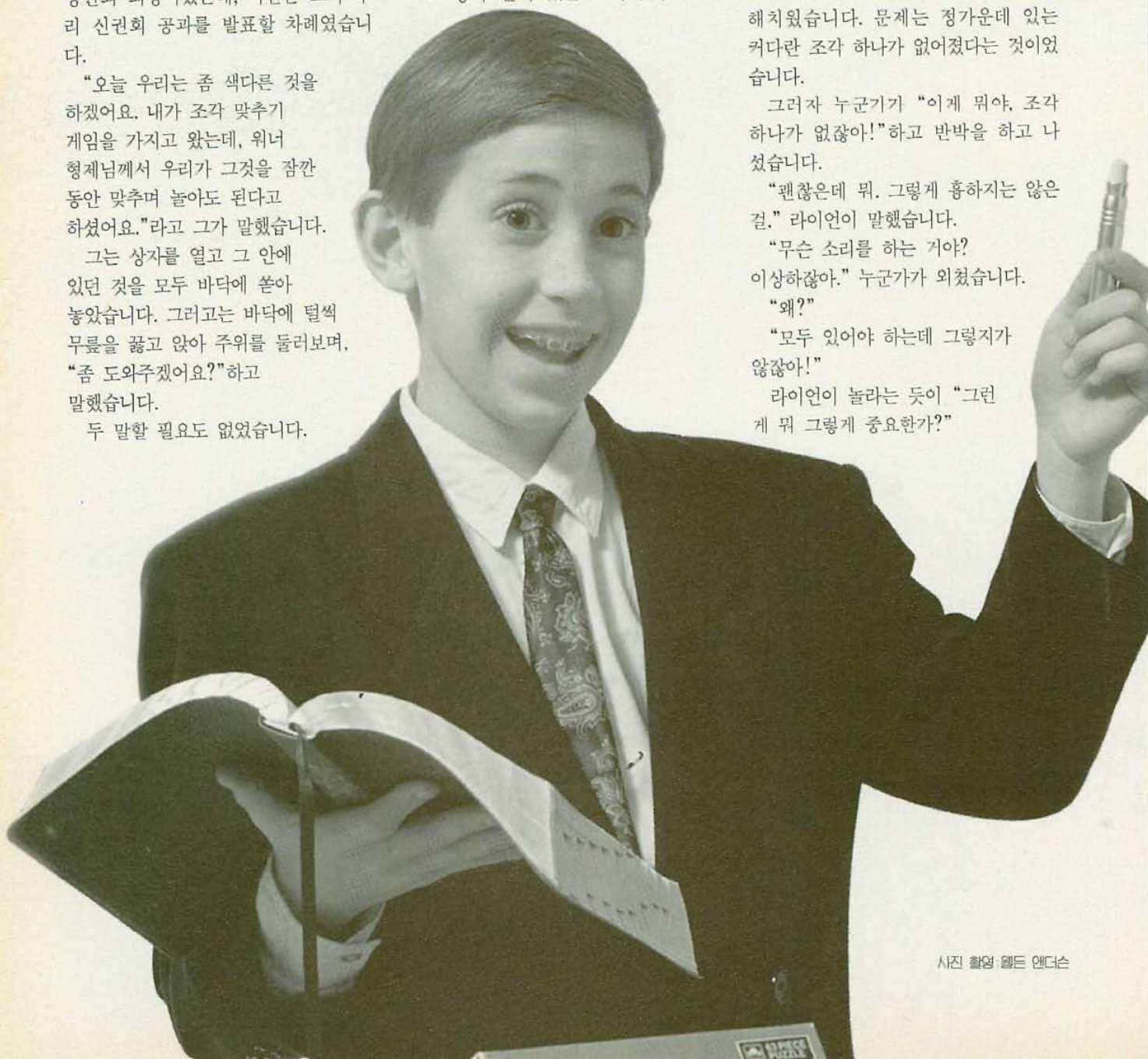
“괜찮은데 뭐, 그렇게 흥하지는 않은
걸.”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왜?”

“모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라이언이 놀라는 듯이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중요하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 게임은 의미가 없어.”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방안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케빈이 한동안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조각 맞추기 놀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케빈 없이는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정원회라고 할 수 없는거죠.”

라이언은 제대로 해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공과를 너무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몇 분 동안 케빈을 다시 정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이언은 여러분이 공과를 가르칠 때, 그것이 가정의 밤을 위한 것이든 주일학교를 위한 것이든, 꼭 총관리 역원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공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생각과 통찰력과 경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문이 세미나리 교사,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그분들의 생각을 묻고 정보를 얻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충실하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준비할 때와 발표할 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다음은 좋은 공과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입니다.

공과 준비

1. 공과 내용의 주제를 가르칠 사람

들의 일상 생활과 연결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라이언의 공과는 그가 단순히 정원회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원회에 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케빈을 돕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정원회라는 단체가 우리 모두와 연관된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생동감이 있는 공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림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 또는 토론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라이언의 공과는 그 한 좋은 예입니다. 정신없이 그 조각을 맞추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시간을 가지고 공과를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밤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날인 일요일 아침에 좋은 공과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서둘러 미리 준비하십시오. 평소에 적어 놓았던 것들과 생각을 모아 잘 정리하십시오.

4. 공과를 끝마칠 때에는 여러분이 가르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봉사에 관한 공과를 하려고 한다면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주에 봉사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발표하기

1. 긴 이야기를 죽 읽어 내려가는 것

을 삼가하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비록 아주 훌륭하게 쓰여졌을지라도—소리내어 읽혀졌을 때는 그 의미나 영향력이 덜합니다. 쉬운 말로 바뀌어서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십시오.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같은 내용의 요점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성도의 벗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의 벗은 이야기들과 개인적 경험들을 인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경전을 이용하고자 한다면(어떤 공과에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공과 시간에 활동을 하거나 실물 공과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상황에 맞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 모임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것 같은 활동은 삼가하십시오.

5. 여러분 자신이 그 공과에 대해 가장 잘 실감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것에 관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충심으로 임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6. 공과에 열의를 다하십시오.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도 열의가 없는 공과에 어느 누구도 열의를 가져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7. 끝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

러 시 아 에 서

모린 클레이튼

러시아인 보초가 이차 대전 전에 세워진 낡은 병원으로 들어가는 큰 길쪽으로 난 출입문을 열어 주자 청녀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로 출입문 안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은 모두 이번 봉사 활동으로 잔뜩 흥분하고 있었지만 이 활동이 끝날 때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군인 와드의 청녀들은 체르노빌 핵공장 폭발 때 방사선에 노출된 서른 두 명의 러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이 어린이들이 전동독의 일부였던 벨리츠로 보내져 그곳에서 30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면 또 다른 그룹의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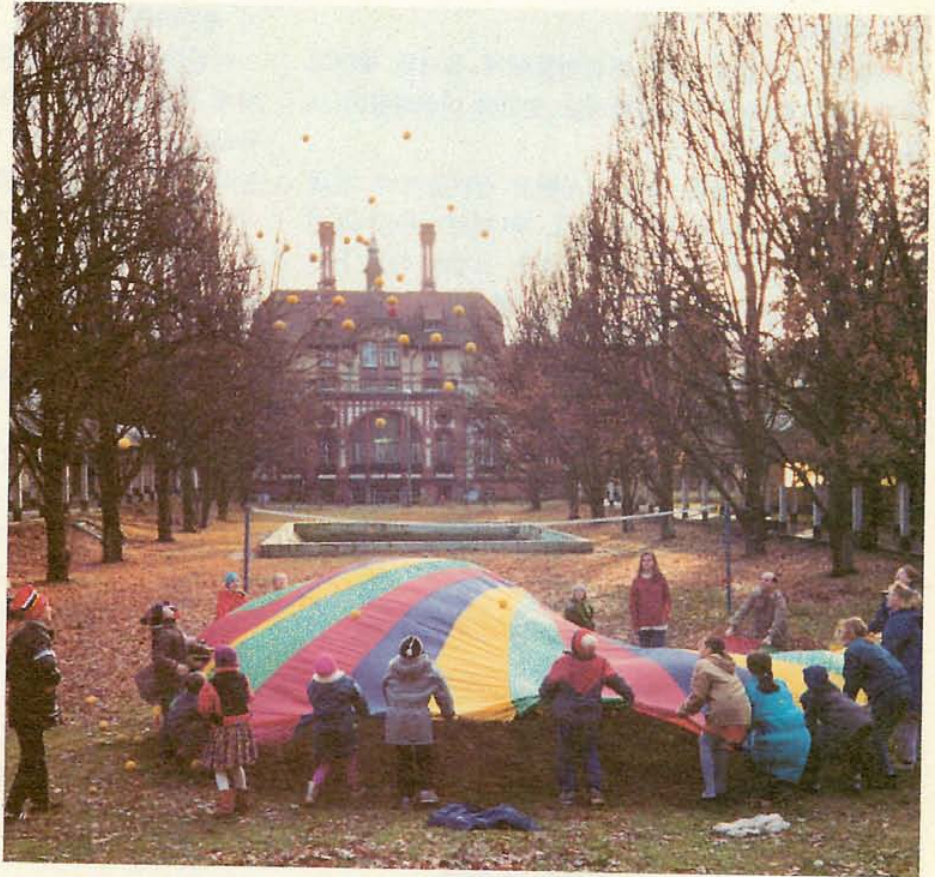
이 오게 되어 있었다. 청녀들은 어린이들과 홀라후프를 하며 놀았다. 그들은 낙하산 위에다 고무공을 튀기며 놀기도 하고 방 한쪽에 있는 모든 공들을 호각 소리가 나기 전에 다른 한편에 옮기는 게임을 하기도 했다. 청녀들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어린이 각자에게 과일이 든 주머니나 껌, 그리고 공책, 펜, 삼색 연필 등이 든 선물을 주었다.

차가 큰 길에 들어서자 침묵은 깨졌다. 그러나 흔히 그 나이 또래 청녀들에게서 나오는 행복에 가득 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이내 그 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모두들 방금 전에 한 경험에 대해 좋은 느낌을



맷 은 우 정

청녀들은 체르노빌 핵공장
폭발로 방사선에 노출된 러시아
어린이들과 오후를 보내고 있다.
“언어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자매가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감을 통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왼쪽: 제시카와 티나 도니와
그들의 새 러시아 친구 여덟
살짜리 사사와 함께.



갖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춤을 선사했고 청녀들에게 '신데렐라' 연극을 보여 주기까지 했다. 청녀들은 어린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열 일곱 살인 엘리자베스 판스워드스는 이렇게 말한다.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감으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

그들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린이들은 춤과 노래를 선사했고 청녀들에게 '신데렐라' 연극을 보여 주기까지 했다.



기 때문이죠."

어린이들은 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끝나자 청녀들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눈물이 나왔어요."라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저는 우리가 부른 노래가 정말 진리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 같은 자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이 청녀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 주셨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어요." 열 일곱 살인 티나 도니는 말한다. 그녀는 사샤라는 여덟 살짜리 소년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아이는 청녀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온통 장난감 기타 놀이에만 열중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샤는 우리가 받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 또 우리가 너무 세상에 휩쓸린 나머지 서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원들도 이들의 방문을 기뻐했고 또다시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는 금요일에 다시 오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번에는 음식과 옷과 러시아어판 물몬경을 가져 가기로 했다. 이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스테이크의 모든 청녀들은 어린이들이 벨리츠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매달 러시아 어린이들을 방문했다.

청녀들은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영을 느끼면서 병원을 떠났다. "봉사하고 있는 동안 제가 여태껏 느껴 본 것 중 가장 강한 영을 느꼈어요." 이같은 말을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뿐만이 아니었다.

차는 방향을 바꿨다. 청녀들은 멀리서 그들의 예배당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신 주 은혜로"(찬송가 138장)를 부르기 시작했다. 베냐민 왕이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모사이야서 2:17)라고 한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



주님께서는 주신 모든 밀생을 이루삼니피이삼서 27:18 참조, 클리크 켈리 포리이스 그린.
"노아가 이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대로 안 수 들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창세기 7:7~9)



이태리 로마에 있는 말일성도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하며 또한 비회원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로마의 바른 길에서” 10쪽 참조.